

## ‘통일신라’사 연구의 현황과 새로운 모색

The Status and Challenge of ‘Unified Silla’ Study

---

저자 (Authors)	이재환 LEE, Jaehwan
출처 (Source)	<a href="#">한국고대사연구 (95)</a> , 2019.9, 105-131(27 pages) <a href="#">The Journal of Korean Ancient History (95)</a> , 2019.9, 105-131(27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한국고대사학회</a> Society for Korean Ancient History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215972">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215972</a>
APA Style	이재환 (2019). ‘통일신라’사 연구의 현황과 새로운 모색. 한국고대사연구(95), 105-131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25.137.52.*** 2020/07/30 09:17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통일신라’사 연구의 현황과 새로운 모색

이재환\*

- I. 머리말
- II. 현황
- III. 모색
- IV. 맺음말

### 국문 초록

이 글은 676년부터 신라 멸망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최근 10년간 현황을 파악하고 새로운 방향성의 모색을 시도한 것이다. 근래 ‘통일신라’사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다는 이미지가 있으나, 실제 연구 성과들을 모아보니 그렇게 보기는 어려웠다. 그럼에도 그러한 인상을 갖게 했던 이유로 관심이 집중될 만한 이슈와, 학계의 이목을 끌만한 문자자료의 신발견·신출토가 상대적으로 적었음을 들 수 있겠다. 아울러 이전에 중요시되던 핵심 논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논쟁의

\* 중앙대학교 조교수

대표 논저 : 2018 「新羅의 宦官 官府에 대한 試論 -洗宅(중사성)의 성격에 대한 재검토-」 『木簡과 文字』 第21號 ; 2018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 荷札의 성격에 대한 새로운 접근」 『韓國史研究』 182 ; 2018 「신라 동궁 출토 14면체 酒卮 주사위의 명문 해석과 그 의미」 『동서인문학』 54.

방향도 한 지점으로 몰리지 않았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묶어내던 큰 틀, 구심점으로서의 힘이 약해지는 추세가 주목된다.

구심력의 약화는 곧 다양성의 강화로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화에 대해서는 파편화를 우려하는 시선도 있으나, 다양한 주제와 소재로 연구 영역을 확장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이루어져야 할 필요도 있다. 앞으로 역사학계가 손을 내밀어야 할 대중의 취향은 그 가운데서 찾아질 것이다.

근래에 들어 지구사, 거대사를 비롯한 거대한 역사 서사에 대한 전 세계적 대중의 수요가 확인된다. 파편화된 소재는 그 소재에 기반하여 공간축 혹은 시간축을 따라서 각자의 영역을 확장하면서 이야기를 펼쳐 나갈 수 있게 한다. 작은 이야기가 큰 세계를 만나는 다른 방향성 또한 가능한 것이다. 신라의 역사, 혹은 ‘한국사’를 이야기하기 위한 목적과 방향성 아래에서의 시야 확대가 아니라, 인간과 세계, 지구라는 거대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의 한 부분, 분야의 연구라는 측면을 의식해 볼 필요가 있다. 개별 연구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파편, 조각일 수밖에 없지만, 무엇이 조각이 될 것인가는 특정한 지역 세계, 문명권, 반구(hemisphere), 혹은 지구 전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케일을 통해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

주제어 : 통일신라, 다양화, 파편화, 지구사, 거대사, 대중, 취향

## I. 머리말

이 글은 ‘통일신라’사의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한 것이다. 대상이 되는 ‘통일신라’는 신라와 唐 사이의 전쟁이 마무리된 676년 이후의 신라를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통일신라’의 ‘통일’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sup>1)</sup> ‘대신라’나 ‘후기신라’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1) 金瑛河, 2007 『新羅中代社會史研究』, 일지사.

이재환, 2019 「7세기 중·후반 동북아시아의 전쟁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역사비평』 통권126호(2019 봄).

그 기점을 백제·고구려의 멸망이 아니라 신라·당 전쟁의 끝으로 잡는 데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sup>2)</sup>

아울러 ‘통일신라’의 ‘끝’을 언제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모호한 측면이 있다. 이 시기의 시작점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져 왔지만, 끝나는 시점은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신라가 멸망하는 시기까지를 ‘통일신라’로 볼 경우, 견훤과 궁예가 왕을 칭하며 독립된 국가로 완전히 분리되어 나간 이후의 시기는 ‘통일’이라는 표현과 매우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해당 시기를 ‘후삼국시대’로 분리한다면 ‘통일신라’의 끝은 견훤이 왕을 칭한 892년으로 잡아야 할 것이다.

‘신라’라고 하는 국가의 자체적인 흐름 속에서 시기를 언급할 경우에는 『三國史記』에 보이는 上代·中代·下代나, 『三國遺事』 王曆의 上古·中古·下古와 같은 구분을 사용하는 편이 나올 수 있다. 실제로 ‘통일신라’ 이전의 신라에 있어서 ‘中古期’라고 하는 용어의 사용은 매우 일반적이며, ‘통일신라’에 대해서도 中代나 下代, 이를 묶은 ‘中·下代’ 등의 표현이 널리 사용된다.<sup>3)</sup> 下代나 下古의 경우 신라의 마지막 왕까지를 대상으로 하므로, ‘후삼국’ 분립 이후의 신라를 포괄하여 지칭할 수 있다. 惠恭王代까지와 宣德王 이후의 구분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경우, 中代와 下代를 합한 시기와 일치하는 ‘下古’의 사용 또한 적당해 보인다.<sup>4)</sup> 上代와 中古가 끝나고 中代·下古가 시작되는 시점은 태종무열왕이 즉위한 654년으로, 흔히 ‘통일신라’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는

2) 윤선태, 2007 「‘통일신라’의 발명과 근대역사학의 성립」 『新羅文化』 第29輯.

3) 논저의 제목을 기준으로 할 때 지난 10년간 ‘통일신라’나 ‘통일기’라는 표현을 사용한 예(82건)보다 ‘中代’와 ‘下代’, ‘中·下代’ 등의 표현을 사용한 예(94건)가 더 많았다. 물론 제목에 후자의 표현을 사용한 논저들이 모두 ‘통일신라’·‘통일기’ 용어를 부정한 것은 아니며, 본문 내에서 사용한 경우도 많다. 집계에 사용된 논저의 수량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할 것이다.

4) 윤선태, 2017a 「『三國遺事』 紀異編 ‘元聖大王’條의 가치 -신라 ‘下古’시기의 정치구조와 그 함의-」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 38.

676년과 22년의 시차가 있지만, ‘통일신라’라는 결과를 야기하는 계기 혹은 이행기로서의 전쟁이 포함된 정도라고 하겠다.

이처럼 ‘통일신라’ 시대의 설정에 대해서는 더 생각해 볼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으나, 기존의 논의들을 정리하는 편의상 본고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일신라’의 시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676년을 기준으로 이후 신라 멸망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삼아서, 연구 현황에 기반한 새로운 방향성의 모색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다.

## II. 현황

‘새로운 모색’을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대상으로는 최근 10년간(2009년~2018년)을 택해 보았다. 사실 필자는 근래에 다른 시대나 분야에 비해 ‘통일신라’사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으며, 신진 연구자 유입도 적은 편이 아닌가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주변에도 이와 유사한 인식을 가진 경우가 많이 보였다.

하지만 정작 지난 10년간의 연구 성과들을 모아보니 그렇게 볼 수는 없었다. 일단 그 사이에 ‘통일신라’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자만 해도 20명이 넘어,<sup>5)</sup> 적지 않은 숫자라 하겠다. 아울러 국사편찬위원회의

5) 박광연, 2010 「新羅 法華思想史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朴明浩, 2010 「新羅 中代 支配體制 研究」, 高麗大學校 史學科 博士學位論文.

韓準洙, 2010 「新羅中代の 唐制受容과 統治體制的 정비」, 國民大學校 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金志垠, 2010 「통일신라의 對日交易品 연구」, 東國大學校 史學科 博士學位論文.

朴省炫, 2010 「新羅의 據點城 축조와 지방 제도의 정비 과정」, 서울大學校 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鄭東樂, 2011 「新羅下代 禪僧의 現實認識과 對應」, 嶺南大學校 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한국사연구회보』를 기준으로 할 때,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통일신라’를 대상으로 한 논문과 저서를 취합해 보면 801편 정도로서,<sup>6)</sup> 10년 동안 평균적으

- 
- 洪承佑, 2011 『韓國 古代 律令의 性格』, 서울대학교 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 白永美, 2012a 『韓國 古代의 戶口 編制와 戶等制』, 高麗大學校 韓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 劉占鳳, 2012 『新羅의 唐 文化 受容과 그 變容』, 慶北大學校 史學科 博士學位論文.
- 韓鈴和, 2012 『韓國 古代의 刑律 研究』, 成均館大學校 史學科 博士學位論文.
- 崔毅光, 2013 『新羅下代 王位繼承 樣相과 性格』, 高麗大學校 史學科 博士學位論文.
- 小宮秀陵, 2014 『新羅·渤海의 對唐藩鎮交涉 研究』, 서울대학교 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 李炫珠, 2014 『新羅 王室女性의 稱號變遷 研究』, 成均館大學校 史學科 博士學位論文.
- 盧秉湜, 2014 『新羅 國原小京과 西原小京의 防禦施設 變遷』, 忠北大學校 史學科 博士學位論文.
- 이재환, 2015 『新羅 眞骨 研究』, 서울대학교 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 郭磊, 2016 『新羅 五臺山文殊信仰 研究』, 東國大學校 史學科 博士學位論文.
- 李基峰, 2016a 『統一新羅時代 災異와 政治·社會 變動』, 忠南大學校 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 朴秀淨, 2017a 『三國史記』職官志 研究』, 高麗大學校 韓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 玉娜穎, 2017 『新羅時代 密教經典의 流通과 그 影響』, 淑明女子大學校 史學科 博士學位論文.
- 金淵敏, 2017 『新羅 密教思想史 研究』,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李東柱, 2018 『新羅 統一期 王京의 構造와 運營』, 慶北大學校 史學科 博士學位論文.
- 崔熙俊, 2018 『新羅 外賓 迎接儀禮 研究』, 高麗大學校 韓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 이 중에는 ‘한국 고대’나 신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서 ‘통일신라’를 일부 다룬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6) 『한국사연구회보』는 古代 카테고리 내에 신라나 ‘통일신라’의 세부 카테고리를 분류하고 있지 않아, 해당 기간 중 ‘신라’로 검색되는 결과 가운데 ‘통일신라’를 다룬 것들을 필자가 선별하였다. 그 과정에서 실수와 누락이 발생했을 수 있다. 또한 『한국사연구회보』에 빠진 연구성과가 종종 있으며, 고고학·미술사·언어학·건축·조경 등의 연구성과와 비학술적 저술 일부가 포함된다. 따라서 이 숫자는 정확한 것이 아니라, 양적인 변화를 대략적으로 확인하는 데 참고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아울러 이 중에는 2009년 이전에 논문으로 발표되었다가 이 때 저서로 모아진 것들도 있다. 편의상 양적 집계에는 포함하였지만, 뒤에 연구 내용의 흐름을 파악할 때에는 논문 발표 시점

로 매년 80편 정도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는 ‘古代’로 구분된 논문과 저서 6,746편을 기준으로 할 때 약 12%에 해당하는 분량이다.<sup>7)</sup> 연도별로 살펴봐도 해마다 증감은 있으나 일관된 감소의 추세는 확인되지 않는다. 상당한 양의 연구 결과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배출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침체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주었다면, 우선 다른 국가나 시대에 비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임팩트’를 줄 만한 이슈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데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다. 이미 10년 이상 지난 일이 되었지만 중국의 ‘동북공정’에 따른 논란들이나, 근래 몇 년 동안 주목 받고 있는 ‘사이비역사학’ 혹은 ‘유사역사학’에 대한 대응의 문제, 최근 국정과제로 떠오른 가야사 등 주로 외부로부터 촉발되어 학계 내에서도 관심이 집중되었던 이슈들과 관련하여 ‘통일신라’는 논의의 초점에서 살짝 빗겨 있었다.<sup>8)</sup>

아울러 학계의 이목을 끌만한 문자자료의 신발견·신출토가 상대적으로 적었음도 이유가 될 것이다. 2009년에는 백제의 미륵사지석탑에서 금제 사리 봉안기가 발견되었고, 2008년 출토된 나주 복암리 목간도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개, 연구되었다. 2012년에는 <집안 고구려비>가 발견되면서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신라의 자료로서도 2009년에 신라 最古의 금석문인 <포항 중성리 신라비>가 발견된 바 있으나, ‘통일신라’ 이전 시기에 해당한다. 이들 자

---

을 기준으로 2009년 이후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서술하도록 하겠다.

7) 中·下代나 下古로 시기를 끊어낼 경우, 상대적으로 사료가 풍부하고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쟁 시기가 포함되므로, 비중이 유의미하게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8) 한국고대사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굵직하고 논쟁적인 주제들을 선정하여 시민들과 대화를 추구했던 시민강좌의 주제 중에서 ‘통일신라’와 어느 정도 연관성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삼한일통의식과 삼국통일론” 정도 뿐, ‘통일신라’를 대상으로 한 것은 찾아볼 수 없다는 데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한국고대사학회 편, 2017 『우리시대의 한국 고대사 1·2』, 주류성출판사 참조).

료들은 모두 해당 자료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가 열릴 정도로 학계 내·외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고구려와 백제의 ‘유민’이나 그 후손들이 唐에서 남긴 墓誌銘들도 속속 발견되어 연구되고 있다.

물론 지난 10년 사이에 ‘통일신라’ 시대의 新출토·발견 문자자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9년에는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에서 명문이 새로 발견되어 이후 연구와 논쟁이 이어지고 있으며,<sup>9)</sup> 창녕 화왕산성 연지에서 발견된 목간들도 소개·분석되었다.<sup>10)</sup> 또한 2010년에 경주 傳仁容寺址 출토 목간이 공개되어 연구가 진행되었다.<sup>11)</sup> 2011년 및 2012년에는 사천왕사지 발굴 조사를 통해 비편 2점의 발견이 보고되었다.<sup>12)</sup> 중국 河北省 刑臺市 沙河市에 신라 출신 入唐求法僧 惠覺禪師의 비석이 존재한다는 사실 또한 알려졌다.<sup>13)</sup>

- 
- 9) 崔聖銀, 2009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 小考 -造像銘文과 중대신라 불교조각-」 『新羅史學報』 16.  
張日圭, 2012 「창녕 관룡사의 신라 불교사적 위상」 『新羅史學報』 26.  
박흥국, 2016 「예천 개심사지 5층석탑과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조여래좌상의 풍우(風雨) 마모흔 고찰」 『科技考古研究』 22.  
임영애, 2016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의 새로 발견된 ‘명문’과 ‘양식’ 문제」 『新羅文化』 47.  
蔡旼錫, 2017 「昌寧 觀龍寺 龍船臺 石佛坐像의 조성 배경과 檀越 세력」 『新羅史學報』 41.
- 10) 김시환·구민정·이성호, 2009 「昌寧 火旺山城 蓮池」, 昌寧郡·慶南文化財研究所.  
박성진·김시환, 2009 「창녕 화왕산성 蓮池 출토 木簡」 『木簡과 文字』 第4號.  
김재홍, 2009 「창녕 화왕산성 蓮池 출토 木簡과 祭儀」 『木簡과 文字』 第4號.  
金昌錫, 2009 「창녕 화왕산성 蓮池 출토 木簡의 내용과 용도」 『木簡과 文字』 第5號.
- 11) 권택장, 2010 「경주 傳仁容寺址 유적 발굴조사와 木簡 출토」 『木簡과 文字』 第6號.  
金永旭, 2011 「傳仁容寺址 木簡에 대한 어학적 접근」 『木簡과 文字』 第7號.  
이재환, 2011 「傳仁容寺址 출토 ‘龍王’ 목간과 우물·연못에서의 제사의식」 『木簡과 文字』 第7號.
- 12) 최장미, 2011 「사천왕사지 발굴조사 성과와 추정 사적비편」 『木簡과 文字』 8.  
최장미, 2012 「四天王寺 出土 碑片의 形態學的 檢討」 『역사와 경계』 제85집.
- 13) 루정호, 2011 「새로 發見된 新羅 入唐求法僧 惠覺禪師의 碑銘」 『史叢』 73.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진행된 국립경주박물관 남측부지 유적 발굴 과정에서 출토된 명문용기와 목간이 2013년에 소개된 바 있다.<sup>14)</sup> 2017년에는 삼척 흥전리사지 출토 고승비편이 공개되어, 연구가 이루어졌다.<sup>15)</sup> 唐의 신라인 관련 문자자료들을 새롭게 찾아내는 작업도 이어지고 있다.<sup>16)</sup>

이들 신출토·신발견 문자자료 중에는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만큼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있으며, 후속 연구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개별 자료를 놓고 학술대회가 열리거나 그에 기반한 저서·자료집 등이 출간되고 있는 앞의 다른 국가·시기 자료만큼 ‘임팩트’를 주지 못하였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한 편으로 과거에 증시되던 논점이나 해당 논점을 다루는 방향성의 변화가 인상을 주었을 수 있다. 2007년에 한국고대사학회는 창립 20년을 기념하여, 이전 20년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미래를 전망한 『한국 고대사 연구의 새 동향』을 발간하였다.<sup>17)</sup> 이때 ‘제2부 최근 연구의 주요 쟁점’에서 ‘통일신

14) 최순조, 2013 「국립경주박물관 남측부지 유적 출토 신명문자료 - 東宮衛銘 호 및 辛番(?) 東宮洗宅銘 청동접시-」 『木簡과 文字』 第10號.

15) 박찬문, 2017 「삼척 흥전리사지 출토 고승비편 소개」 『木簡과 文字』 第18號.

최연식, 2018 「흥전리사지 출토 고승비편의 내용과 흥전리사지의 역사적 성격」 『木簡과 文字』 第20號.

16) 권덕영, 2009 「〈大唐故金氏夫人墓銘〉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 『한국고대사연구』 54.

鄭淳一, 2009 「唐代 金氏 관련 墓誌의 초보적 檢討」 『新羅史學報』 16.

李泳鎬, 2009 「在唐 신라인 金氏墓誌銘의 검토」 『新羅史學報』 17.

梁銀景, 2010 「張保臯 활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백제 遺民과 신라인들의 佛事活動」 『新羅史學報』 18.

金榮官, 2013 「在唐新羅人金日用墓誌銘에 대한 검토」 『新羅史學報』 27.

박현규, 2013a 「唐无染禪院碑」 잔편 소개와 新羅人 金淸의 활동 의의」 『韓國古代史探究』 14.

朴現圭, 2013b 「洛陽 龍門石窟 중 고대 한국 관련 佛龕 고중에 관한 문제점」 『신라문화』 42.

권덕영, 2017 「중국 금석문을 활용한 신라사의 몇 가지 보완」 『역사와 경계』 제105집.

라’와 관련하여 선택된 주제는 ‘신라의 경제제도와 소위 ‘촌락문서’, 그리고 ‘신라 중대의 전제왕권론과 지배체제’였다. 이 두 가지가 당시 주요한 쟁점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것이다.

‘촌락문서’에 대해서는 지난 10년 동안에도 여전히 연구 성과가 발표되고 있지만,<sup>18)</sup>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의 활발한 논의에 비하면 다소 열기가 식은 듯 보인다. ‘신라 중대의 전제왕권론과 지배체제’는 과거 신라 정치·사회사의 핵심적인 논점으로 논의가 계속되어 왔던 중요한 주제이다. 10년간 정치사로 분류할 만한 논저는 245편으로 30%에 해당하는 비중을 가지고 있으나, 그 가운데 특히 中代를 중심으로 두면 해당 주제를 다룬 논문은 26편 정도로 많지 않은 편이다.<sup>19)</sup> 물론 ‘전제왕권론’은 中代에만 국한되는 것

17) 한국고대사학회, 2007 『한국 고대사 연구의 새 동향』, 서경문화사.

18) 백영미, 2009 「삼국 및 통일신라 戶口 관련 자료 검토와 帳籍의 작성」 『韓國史學報』 35.

이현숙, 2009 「촌락문서의 인구분석으로 본 신라통일기 전염병과 인구」 『新羅史學報』 15.

김기섭, 2010 「唐代 호등제의 신라적 수용과 변용」 『한국고대사연구』 57.

백영미, 2010 「統一新羅와 日本의 戶等 算定 비교 연구」 『동국사학』 49집.

백영미, 2012b 「新羅村落文書의 戶等 算定 방법」 『한국고대사연구』 67.

윤선태, 2017b 「新羅村落文書 중 ‘妻’의 書體 -문서의 작성연대와 관련하여-」 『木簡과 文字』 第19號.

木村誠/아마다 후미토 옮김, 2018 「新羅 村落文書의 작성 年代에 관하여」 『大丘史學』 第133輯(이 논문은 2004 『古代朝鮮의 國家と社會』, 吉川弘文館에 실었던 글을 번역한 것이다).

19) 신정훈, 2009 「新羅 中代의 大赦와 恩典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 『白山學報』 제85호.

朴明浩, 2010 앞의 논문.

近藤浩一, 2010 「景德王代 王子 金泰廉의 日本派遣 事情 -新羅 國內 政治와 관련하여-」 『韓國古代史探究』 5.

曹凡煥, 2010a 「神穆太后 -新羅 中代 孝昭王代의 政治的 동향과 神穆太后의 攝政-」 『서강인문논총』 제29집.

이기봉, 2011 「新羅 聖德王代의 災異와 儒敎政治」 『韓國史研究』 152.

이 아니라 ‘진골귀족’과의 대립항으로서 下代 ‘귀족연립정권론’과도 표리를 이루며, 진골 가계들의 分枝化에 대한 파악 또한 그 배경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下代에 대한 논의도 해당 주제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역시 20여 편 정도로 정리된다.<sup>20)</sup>

- 김수태, 2011 「신라 해공왕대 만월부인의 섭정」 『新羅史學報』 22.
- 이영호, 2011 「통일신라시대의 王과 王妃」 『新羅史學報』 22.
- 조범환, 2011 「新羅 中代 聖德王代の 政治的 動向과 王妃의 交替」 『新羅史學報』 22.
- 朴南守, 2012a 「新羅 聖德王代 ‘上宰’ 金順貞과 對日交涉」 『新羅史學報』 25.
- 曹凡煥, 2014a 「신라 中代末 惠恭王의 婚姻을 통하여 본 政局의 변화」 『新羅文化』 43.
- 조범환, 2014b 「《삼국유사》 왕력편의 異種記事를 통해 본 中代 新羅의 정치구조 - 신라 중대 景德王의 왕비 교체와 정치적 동향을 중심으로 -」 『新羅史學報』 30.
- 曹凡煥, 2015 「신라 중대 聖德王의 왕위 계승 再考 - 『三國遺事』의 五臺山事蹟을 중심으로 -」 『서강인문논총』 43집.
- 이현주, 2015a 「신라 중대 왕후의 책봉과 위상 정립」 『역사와 현실』 95.
- 이현주, 2015b 「신라 중대 신목왕후(神穆王后)의 혼인과 위상」 『여성과 역사』 22.
- 이현주, 2015c 「신라 중대 효성왕대 해명왕후와 ‘正妃’의 위상」 『韓國古代史探究』 21.
- 徐禎穆, 2016a 「신라 제34대 孝成王의 계비 惠明王妃의 아버지에 관하여」 『震檀學報』 126.
- 서정목, 2016b 「신라 제34대 효성왕의 生母에 관하여」 『韓國古代史探究』 23.
- 이현주, 2016 「신라 중대 효성왕대 해명왕후와 ‘正妃’의 위상」 『韓國古代史探究』 21.
- 김영하, 2016 「古代王權의 전개와 전환 - 신라 왕권의 추이를 중심으로 -」 『한국고대사연구』 83.
- 이천우, 2017 「신라 효소왕대의 정국 운영과 성덕왕의 즉위 과정 - 김순원의 활동을 중심으로 -」 『歷史學研究』 65.
- 이현주, 2017a 「신라 중대 王母의 칭호와 위상 - 해공왕대 만월태후를 중심으로 -」 『한국고대사연구』 85.
- 이현주, 2017b 「신라 중대 만월태후의 자기인식과 ‘성덕대왕신종(聖德大王神鍾)’」 『여성과 역사』 27.
- 박수정, 2017b 「新羅 執事省의 성격과 위상에 대한 再論」 『新羅史學報』 40.
- 김수태, 2017 「이기백의 한국사상사연구와 왕권」 『韓國古代史探究』 27.
- 김수태, 2018 「신라사에서의 전제정치론과 왕권」 『역사와 담론』 85.
- 이재환, 2018 「신라의 회의제와 상대등의 성격에 대한 재검토」 『大丘史學』 131.

나아가 해당 주제를 다룬 연구들 사이에도 여전히 ‘전제왕권론’이나 ‘귀족 연립정권론’, ‘가계분지화론’ 등 전통적 관점의 유효성을 내세우거나 그것을 전제로 두고 추가적으로 논리를 쌓아올린 경우, 기존의 관점을 비판하면서 일부분을 수정하여 자신의 논리를 만들어낸 경우, 도식적인 과거의 인식 틀

20) 최홍조, 2009 「新羅 哀莊王代의 政治改革과 그 性格」 『한국고대사연구』 54.  
권영오, 2009a 「신라하대 중기(839~888) 왕위계승과 정국의 안정」 『지역과 역사』 제 24호.  
권영오, 2009b 「신라하대 정치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新羅史學報』 17.  
최의광, 2009 「新羅 元聖王의 王位繼承과 國人」 『韓國史學報』 제37호.  
김창겸, 2010 「신라 元聖王의 先代와 血緣的 背景에 대한 재검토」 『한국학논총』 34.  
안주홍, 2010 「신라 하대 문성왕대의 정국」 『新羅史學報』 19.  
조범환, 2010b 「新羅 下代 憲德王의 副君 설치와 그 정치적 의미」 『震檀學報』 110.  
최의광, 2011 「新羅下代 遺詔에 의한 王位 繼承 研究」 『韓國史學報』 제44호.  
張日圭, 2011 「응림의 결혼과 그 정치적 의미」 『新羅史學報』 22.  
이기봉, 2012a 「신라 원성왕대의 재이와 정치·사회적 변동」 『新羅史學報』 25.  
최의광, 2012 「新羅 下代 王位繼承 分爭과 國人」 『史叢』 75.  
권영오, 2012 「신라하대 인물들의 정치 활동과 연령 -국왕들과 왕족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 제31호.  
朴南守, 2012b 「新羅 下代 王室의 祭禮와 元聖王 追崇의 정치사회적 의의」 『사학연구』 제108집.  
이기봉, 2012b 「新羅 景文王代의 政局運營과 災異」 『신라문화』 39.  
崔毅光, 2013 앞의 논문.  
선석열, 2015 「신라 하대 효공왕의 현강왕 서자설 재검토」 『石堂論叢』 62집.  
김창겸, 2016 「신라 하대 정치형태와 국왕의 위상」 『韓國古代史研究』 83.  
손흥호, 2016 「9세기 전반 신라의 정치동향과 충공의 역할」 『韓國古代史研究』 83.  
선석열, 2016 「신라 헌덕왕대의 정치과정과 정교부인의 혼인 문제」 『신라문화』 48.  
이기봉, 2016b 「新羅 憲德·興德王代의 災異와 정치·사회적 영향」 『역사와 경계』 100.  
박미선, 2017 「신라 경문왕계의 佛事 활동과 骨法의 의미」 『신라문화』 50.  
이재환, 2017 「新羅 眞骨의 ‘家系 分枝化’에 대한 재검토 - 사위의 왕위계승권을 중심으로 -」 『大丘史學』 127.  
이현주, 2018 「신라 하대초기의 왕위계승과 태후의 역할」 『여성과 역사』 29.

자체를 부정한 경우 등 기존의 큰 틀에 대한 입장에서 차이가 확인된다. 이전에 중요시되던 핵심 논점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논쟁의 방향도 한 지점으로 몰리고 있지 않은 것이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묶어내던 큰 틀, 구심점으로서의 힘이 약해지는 추세가 주목된다.

### III. 모색

구심력의 약화는 곧 다양성의 강화로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논쟁점이 기존의 논쟁점을 대체하였다기보다 다양한 주제와 소재로 연구의 영역이 더 확장되어 왔다. 이미 2000년대 이후 연구자 증가, 연구 환경 개선에 따라 군사제도, 교역·상업·유통, 수공업, 대일·대당 관계, 재당 신라인, 王京制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실증적·구체적 연구 성과들이 배출되고 있음이 지적되었다.<sup>21)</sup> 해당 주제들은 지난 10년 동안에도 꾸준히 관련 논저들이 발표되어 다양성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그 밖에 지방사회나 지방 통치와 관련된 연구, 국학에 대한 관심, 국가 의례와 禮制 등도 여전히 중요시되고 있다. 국내 및 대외 교통로에 대한 관심도 주목된다. 음식 문화나 음주·놀이, 주술과 희생제의, 환관의 존재, 시간 생활, 그리고 상어에 이르기까지 흥미로운 소재 혹은 주제의 발굴이 이어지고 있다.

다양화에 대해서는 파편화의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신라사 연구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분류사’ 연구보다도 정치사 연구가 바탕이 된다는 평도 나왔다.<sup>22)</sup> 하지만 반드시 ‘신라사’, 혹은 ‘정치사’적 틀에 기반을 두어야 하거나, 그 방향으로의 귀결을 추구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21) 한국고대사학회, 2007 앞의 책, p.131.

22) 김수태, 2018 앞의 논문, p.43.

든다. 어쩌면 다양화·파편화는 아직 부족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소재가 반드시 ‘신라사’ 혹은 ‘한국(고대)사’의 흐름 속으로 돌아와야만 하는 것 또한 아니다. 파편화된 소재는 그 소재에 기반하여 공간축 혹은 시간축을 따라서 각자의 영역을 확장하면서 이야기를 펼쳐 나갈 수 있다. 작은 이야기가 큰 세계를 만나는 다른 방향성 또한 가능한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재레드 다이아몬드와 유발 하라리의 이름은 서점가 베스트셀러 역사 부분의 최상위권에서 내려올 줄 모르고 있다. 모두 인간 혹은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대한 역사 서술이다. 보다 더 큰 차원에서 지구 자체를 단위로 하여 빅뱅으로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거대사’를 제창한 데이비드 크리스천의 ‘빅 히스토리’도 2013년에 한국에 출간되면서 역사 부분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랐다. 이후 ‘빅 히스토리’를 제목으로 한 책들이 시리즈 포함 20편 이상 출판된 것도 그 대중적 인기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커다란 역사의 인기는 한국에서만만의 일은 아니다.<sup>23)</sup> 유발 하라리의 대표작 『사피엔스』는 전 세계 50개국에서 1,000만 부 이상 팔려나갔다고 한다. 거대한 역사 서사에 대한 전 세계적 대중의 수요가 존재하였음을 알려준다.

이들의 공통점으로서 자연과학적 지식의 강조라는 측면도 있지만, 대상 설정의 거대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인간·인류 자체나 지구를 단위로 하는 방향성은 스케일의 확대라는 면에서도 의미가 있겠지만, 근대 역사학에서 당연시되던 공간적 규모의 틀을 뛰어넘는 의의 또한 중요하다.<sup>24)</sup>

물론 대상이 인류, 지구라고 해서 그 큰 덩어리를 한 번에 연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거대한 역사 서사는 파편화된 작은 역사의 조합을 통해 구성되

23) Ann Curthoys & John Docker, 2010 *IS HISTORY FICTION?*,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Press Ltd.; 김민수 譯, 2013 『역사, 진실에 대한 이야기의 이야기』, 작가정신에서도 2010년 개정판에 ‘12장. 역사, 환경사를 넘어 지구사로 진화하다’를 추가하며 2000년대의 트렌드로서 거대한 역사 서사를 들고 있다.

24) 조지형, 2007 『지구사란 무엇인가?』 『서양사론』 제92호, p.309.

지 않을 수 없다. 조합의 단위나 구성에 있어서 다른 역사와의 차별성이 찾아진다고 하겠다. 때문에 규모 자체의 크고 작음보다 규모 내에서 보여주는 ‘지구성’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sup>25)</sup>

커다란 역사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 중요시되는 주제 중 하나는 환경 혹은 생태적 접근이다. 자연과 인간의 상호성·교류, 지리적·생태 환경과 적응의 문제는 주요한 테마가 되고 있다. 그와 관련하여 거대한 역사 서사의 한 부분·분야로서 ‘통일신라’를 이야기할 만한 주제 중 하나로 환경·기후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겠다.

‘통일신라’ 시대 혹은 신라 중대와 하대의 천재지변, 재난에 관한 기록들은 이전부터 주목을 받아,<sup>26)</sup> 다양한 측면에서 그 의미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졌다. 천재지변에 관련된 기록이 단순한 자연현상의 기록이 아니라 정치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 경우도 있었다.<sup>27)</sup> 신라인들이 天命 사상이나 천인감응론적 인식을 바탕으로 천재지변을 바라보았고, 그러한 현상이 기록된 맥락 또한 그에 기반하고 있었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바이지만, 정치적 의미부여나 사건에 대한 언급 없이 단독적으로 남아있는 천재지변 기록을 통해서 특정한 정치적 사건을 유추해 내는 방식의 접근은, 논증과 반증 자체가 불가능한 영역으로 들어설 위험성이 있다.

8세기에서 9세기 전반에 걸친 시기 신라에서 천재지변 관련 기록이 증가하였음은 분명하다.<sup>28)</sup> 9세기 후반에 보이는 “陰陽과 風雨順 歲有年 民足食”의 인식에 대비되어,<sup>29)</sup> 8세기 신라인들은 스스로 災異의 빈발을 인식하며 우려

25) 위 논문, p.310.

26) 신형식, 1981 『삼국사기연구』, 일조각.

‘통일신라’ 시대 災異와 관련된 연구사적 검토는 李基峰, 2016 앞의 논문, pp.4~9 참조.

27) 신정훈, 2010 『8세기 신라의 정치와 왕권 -8세기 신라의 정치적 추이와 천재지변의 성격』, 한국학술정보.

28) 신형식, 1981 앞의 책.

하고 있었다.<sup>30)</sup> 따라서 8세기~9세기 전반의 신라 사회가 이러한 재난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sup>31)</sup>

전통적인 인식 틀에서 ‘(전제)왕권’과 ‘귀족’의 대립과 관련하여 주로 해석 되어 왔던 대상들에 대한 이와 같은 관점에서의 재해석도 이루어진 바 있다. 경덕왕대의 녹읍 부활 조치를 ‘(전제)왕권’ 강화에 대한 ‘귀족’의 반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재해의 연속에 따른 재정 궁핍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해석 하거나,<sup>32)</sup> 경덕왕대의 지명·관호 개정과 혜공왕대의 복고 조치를 ‘개혁’과 그에 대한 반동이라고 보기보다는, 연이은 자연재해 해소하기 위한 상징적 쇄신 표방이라고 본 추정 등이 그것이다.<sup>33)</sup> 해당 시기를 ‘災異의 時代’로 보면서, 신라국가나 지방사회의 대응 양상을 검토하기도 하였다.<sup>34)</sup>

환경과 기후의 변화와 그에 대한 신라 사회의 대응은 스케일을 넓혀 전지구적 차원에서의 기후 변화와의 연관성을 이야기할 단서가 될 수 있다. 이미 당시 동아시아에 ‘소빙기’에 준하는 이상기후현상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던 바 있다.<sup>35)</sup> 사실 이 때는 유럽을 기준으로 할 경우 DACP(Dark Ages Cold Period), 즉 ‘암흑한랭기’ 혹은 ‘중세 초기 기후 악화기’의 후반부와 겹치는 시기이다. 로마 기후 최적기(Roman Climate Optimum)와 10세기 이후의 ‘중세 온난기(Medieval Warm Period)’ 혹은 ‘소기후적 최적기(little climate optimum)’ 사이에 기온이 낮아지면서 기후가 악화되었던 시기로 평가된다.

29) 『三國史記』卷11, 憲康王 六年 月九日條.

30) 『三國史記』卷9, 景德王 15年 2月 및 惠恭王 16年條.

31) 李基峰, 2016 앞의 논문.

32) 전덕재, 2006 『한국고대사회경제사』, 태학사, pp.354~357.

33) 이재환, 2015 앞의 논문, pp.148~150.

34) 尹善泰, 2005 『新羅 中代末~下代初의 地方社會와 佛敎信仰結社』 『新羅文化』 第26輯.

35) 위 논문, p.121 각주 16.

북유럽 지역은 750년경에 한랭기가 끝나지만, 대륙 쪽에서는 9세기까지 지속되었으며, 연평균 기온이 1~1.5°C 떨어지고, 빙하가 확장되어 중유럽의 수목 성장한계선이 200m 올라가는 등의 변화로 포도와 곡식의 재배조건이 악화되고 질병이 확산되어 영아와 소인, 노인의 사망률이 증가하였다. 호우와 벼락, 눈보라 추위, 그리고 새들의 떼죽음, 대홍수, 산사태, 가축병, 흉작, 기근, 전염병이 뒤이어 ‘춥고 습기 많은 오랜 기간의 적대적 환경’으로 평가받았다. 프랑스에서는 기근이 기승을 부리던 784년에 인구의 1/3 가량이 목숨을 잃었고, 793년부터 880년까지의 13년간에 걸친 기근과 홍수가 발발했으며, 전염병과 극단적인 추위가 발생했던 해가 9년에 달하였다고 한다.<sup>36)</sup>

멀리 떨어진 지역 간에도 기후 변화의 연동 가능성은 다방면에서 지적되어 왔다. 태평양과 중국 대륙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남·북반구의 페루와 티베트의 빙하 성장률은 1610년부터 1980년까지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다고 한다. 엘니뇨 남방진동(ENSO) 현상이 이상기후의 원거리 영향에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ENSO 현상은 이집트 나일강 홍수의 규모에까지 영향을 주는데, 나일강 수위계(Nilometer)에 따르면 ‘중세 초기 기후 악화기’에 ENSO 현상이 가장 빈번하였으며, 800년경에 절정기를 이루었음이 확인된다.<sup>37)</sup> ICCP의 지난 2,000년 간 기온 복원을 통해서도 해당 시기에 북반구 전체가 상대적으로 한랭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38)</sup>

하지만 전지구적 경향성 속에서도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문헌 기록의 物候(Phenology)에 의한 연구와,<sup>39)</sup> 花粉 분석에 의한 중국의 고

36) 볼프강 베링어, 2010 『기후의 문화사』, 공감인, pp.131~136.

37) 위 책, pp.144~145.

38)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2007 *Climate Change 2007: The Physical Science Basis*, Cambridge University, p.55.

39) 竺可楨, 1972 「中國近五十年來氣候變遷的初步研究」 『考古學報』1972年 第一期.

기후 복원에서 모두 隋·唐代는 ‘온난기’로 구분하고 있다.<sup>40)</sup> 隋 문제 개황 20년(600)에서 北宋 옹희 2년(985)에 이르는 기간을 비교적 온난다습했던 제3차 온난기로 부르기도 있다.<sup>41)</sup> 일본의 경우도 7세기까지를 한랭기로 보고, 이후 온난기가 찾아온 것으로 보고 있다.<sup>42)</sup>

그렇다면 이 시기 한반도의 기후 상황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과거 『三國史記』에 기반한 분석에서는 중국과 달리 8~9세기에 앞의 난기에 비해 다소 춥고 건조했던 시기가 찾아왔다고 파악하였다.<sup>43)</sup> 최근에는 석순이나 나이테, 화분분석 등을 통해 당시 한반도 곳곳의 기후 변화상을 살펴보는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 당처물동굴 석순의 조직적 특징에 기반한 연구에서는 석순의 절대연령에 따른 조직적 특징의 변화에 태양활동의 변화에 따른 북반구  $\Delta 14C$  변화량 자료와 일치하며, 로마 온난기·암흑 한랭기·중세 온난기·소빙하기 등 전 지구적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준다고 한다.<sup>44)</sup>

그러나 동해안 석호 퇴적물의 화분분석 결과에 따르면, 700년부터는 기온이 상승하기 시작한 시기이다.<sup>45)</sup> 이후 800년을 기점으로 냉량기에서 온난기로 변화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sup>46)</sup> 결국 8~9세기는 10세기 이후의 온

40) 王開發·沈才明·呂厚遠, 1988 「根據粉組合推斷上海西部三千年的植被·氣候變化」 『歷史地理』第6輯.

41) 劉昭民 著/박기수·차경애 譯, 2005 『기후의 반역: 기후를 통해 본 중국의 흥망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42) 安田喜憲, 1990 『氣候と文明の盛衰』, 朝倉書店.

43) 김연옥, 1998 『기후 변화 -한국을 중심으로』, 민음사, pp.135~143.

44) 홍석우·우경식·이상헌·조경남, 2012 「제주도 당처물동굴 석순의 조직적 특징을 이용한 지난 2,000년간의 고기후 변화 연구」 『지질학회지』 제48권 제6호, p.456.

45) Park, J., A Modern Pollen-Temperature Calibration Data Set from Korea and Quantitative Temperature Reconstructions for the Holocene, *The Holocene* 21(7), 2011.

난기에 비하면 춥지만 이전 시기에 비하면 오히려 따뜻해지고 있는 시기였다고 하겠다. 물론 기온만으로 높고 낮음만으로 환경의 우호성을 판가름할 수는 없을 것이다. 淸나라의 경우 전지구적 소빙하기가 진행되는 동안 오히려 상대적으로 다습한 환경 속에서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이후 환경 조건이 바뀌면서 잇따른 환경 재해로 큰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와 있다.<sup>47)</sup>

한편 문헌기록 상의 천재지변은 9세기 중반 이후 감소하는데, 이후의 신라 멸망에 있어서도 환경의 영향을 중요하게 간주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의 강우량이 9세기를 전후하여 심하게 감소하였다는 자료에 근거하여 신라도 유사한 장기적 가뭄을 겪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나왔다.<sup>48)</sup> 나아가 인간에 의한 식생 파괴가 경작지 황폐화와 하천·지하수의 수문 현상을 바꾸며 가뭄 피해를 가중시켜 ‘통일신라’의 붕괴에 영향을 주었다는 가설도 제기되었다.<sup>49)</sup>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향후의 연구와 논의가 기대된다.<sup>50)</sup>

‘통일신라’시대 기후 환경의 변화와 대응에 대한 연구는 ‘신라’라고 하는 사회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지만, 지구 차원에서의 연동성에 대한 검토와 환경과 인간의 복합적 상호작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의 영역·분야로서의 의미 또한 중요하다고 본다. 신라의 역사, 혹은 ‘한국사’를 이야기하기 위한 목적과 방향성 아래에서의 시야 확대가 아니라, 인간과 세계, 지구라는

46) 박정재, 2013 「남한 지역의 홀로세 중후기 기후변화」 『기후연구』 제8권 제2호, p.138.

47) 랜디 체르베니 著/김정은 譯, 2011 『날씨와 역사』, 반디, pp.225~229.

48) 하일식, 2010 「신라 말, 고려 초의 지방사회와 지방세력 -향촌 지배세력의 연속성에 대한 시론-」 『한국중세사연구』 제29호, pp.54~56.

49) 황상일·윤순옥, 2013 「자연재해와 인위적 환경변화가 통일신라 붕괴에 미친 영향」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9권 제4호.

50) 당시 기후 환경의 파악과 환경·인간사회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대한 이론적 접근에 대해서 이희진, 2017 「삼국-통일신라시대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의 이해 - 기후진동에 대응한 사회 지속성의 메카니즘」 『한국학연구』 60이 크게 참고가 되었다.

거대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의 한 부분, 분야의 연구라는 측면을 의식해 볼 필요가 있다. 개별 연구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파편, 조각일 수밖에 없다. 무엇이 조각이 될 것인가는 특정한 지역 세계, 문명권, 반구(hemisphere), 혹은 지구 전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케일을 통해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을 것이다.

#### IV. 맺음말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학교와 그에 따르는 인력, 연구자 수의 감소는 예정된 것이며, 이는 곧 학계의 축소를 의미한다. 결국 앞으로는 학계 '밖'과의 접촉과 관계가 지금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학계가 '밖'과의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단, 과거에 학계에서 손을 뺀어 만나고자 시도한 '밖'의 사람들은 주로 '시민'으로 포착되었다. '시민을 위한', '시민 강좌' 등의 표현이 이를 보여준다. '시민'이 '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넘어서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력 창출의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공공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정의될 경우, '시민'의 '교양'으로서의 역사가 가지는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다.

'시민'이라면 '알아야 할 것', '이렇게 알아야 한다'는 당위적인 접근은, 물론 중요하며 지금까지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인정받아 온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당위성이 언제까지나 널리 받아들여질지, 혹은 계속해서 그 무게를 강조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간이 온 것인지도 모른다. '당위'의 강조가 오히려 역사 자체를 왜곡시킬 수 있음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아울러 역사의 '소비'와 저변 확대라는 측면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민의 교양'으로서의 역사가 이전처럼 역사의 '소비'를 지속적

으로 창출해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앞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은 ‘대중’과 그 ‘취향’일지도 모르겠다. 다양성의 확대야말로 학계가 ‘대중’의 ‘취향’을 마주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투고일 : 2019.7.11

심사개시일 : 2019.7.17

심사완료일 : 2019.8.27

## 참고문헌

- 권덕영, 2009 「〈大唐故金氏夫人墓銘〉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 『한국고대사연구』 54
- 권덕영, 2017 「중국 금석문을 활용한 신라사의 몇 가지 보완」 『역사와 경계』 제105집
- 권영오, 2009a 「신라하대 중기(839~888) 왕위계승과 정국의 안정」 『지역과 역사』 제24호
- 권영오, 2009b 「신라하대 정치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新羅史學報』 17
- 권영오, 2012 「신라하대 인물들의 정치 활동과 연령 - 국왕들과 왕족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 『지역과 역사』 제31호
- 권택장, 2010 「경주 傳仁容寺址 유적 발굴조사와 木簡 출토」 『木簡과 文字』 第9號
- 김기섭, 2010 「唐代 호등제의 신라적 수용과 변용」 『한국고대사연구』 57
- 김수태, 2011 「신라 혜공왕대 만월부인의 섭정」 『新羅史學報』 22
- 김수태, 2017 「이기백의 한국사상사연구와 왕권」 『韓國古代史探究』 27
- 김수태, 2018 「신라사에서의 전제정치론과 왕권」 『역사와 담론』 85
- 김시환·구민정·이성호, 2009 「昌寧 火旺山城 蓮池, 昌寧郡·慶南文化財研究所
- 金淵敏, 2017 「新羅 密敎思想史 研究」,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연옥, 1998 「기후 변화 -한국을 중심으로」, 민음사
- 金榮官, 2013 「在唐新羅人金日用墓誌銘에 대한 검토」 『新羅史學報』 27
- 金永旭, 2011 「傳仁容寺址 木簡에 대한 어학적 접근」 『木簡과 文字』 第7號
- 金瑛河, 2007 「新羅中代社會史研究」, 일지사
- 김영하, 2016 「古代王權의 전개와 전환 - 신라 왕권의 추이를 중심으로 -」 『한국고대사 연구』 83
- 김재홍, 2009 「창녕 화왕산성 蓮池 출토 木簡과 祭儀」 『木簡과 文字』 第4號
- 金志垠, 2010 「통일신라의 對日交易品 연구」, 東國大學校 史學科 博士學位論文
- 김창겸, 2010 「신라 元聖王의 先代와 血緣의 背景에 대한 재검토」 『한국학논총』 34
- 김창겸, 2016 「신라 하대 정치형태와 국왕의 위상」 『韓國古代史研究』 83
- 金昌錫, 2009 「창녕 화왕산성 蓮池 출토 木簡의 내용과 용도」 『木簡과 文字』 第5號
- 盧秉湜, 2014 「新羅 國原小京과 西原小京의 防禦施設 變遷」, 忠北大學校 史學科 博士學位論文
- 루정호, 2011 「새로 發見된 新羅 入唐求法僧 惠覺禪師의 碑銘」 『史叢』 73
- 박광연, 2010 「新羅 法華思想史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朴南守, 2012a 「新羅 聖德王代 ‘上宰’ 金順貞과 對日交涉」 『新羅史學報』 25

- 朴南守, 2012b 「新羅 下代 王室의 祭禮와 元聖王 追崇의 정치사회적 의의」 『사학연구』 제 108집
- 朴明浩, 2010 「新羅 中代 支配體制 研究」, 高麗大學校 史學科 博士學位論文
- 박미선, 2017 「신라 경문왕계의 佛事 활동과 骨法의 의의」 『신라문화』 50
- 박성천·김시환, 2009 「창녕 화왕산성 蓮池 출토 木簡」 『木簡과 文字』 第4號
- 朴省炫, 2010 「新羅의 據點城 축조와 지방 제도의 정비 과정」, 서울大學校 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 朴秀淨, 2017a 「三國史記」 職官志 研究」, 高麗大學校 韓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 박수정, 2017b 「新羅 執事省의 성격과 위상에 대한 再論」 『新羅史學報』 40
- 박정재, 2013 「남한 지역의 홀로세 중후기 기후변화」 『기후연구』 제8권 제2호
- 박찬문, 2017 「삼척 흥전리사지 출토 고승비편 소개」 『木簡과 文字』 第18號
- 박현규, 2013a 「唐無染禪院碑」 잔편 소개와 新羅人 金淸의 활동 의의」 『韓國古代史探究』 14
- 朴現圭, 2013b 「洛陽 龍門石窟 중 고대 한국 관련 佛龕 고중에 관한 문제점」 『신라문화』 42
- 박홍국, 2016 「예천 개심사지 5층석탑과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조여래좌상의 풍우(風雨) 마모흔 고찰」 『科技考古研究』 22
- 백영미, 2009 「삼국 및 통일신라 戶口 관련 자료 검토와 帳籍의 작성」 『韓國史學報』 35
- 백영미, 2010 「統一新羅와 日本의 戶等 算定 비교 연구」 『동국사학』 49집
- 白永美, 2012a 「韓國 古代의 戶口 編制와 戶等制」, 高麗大學校 韓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 백영미, 2012b 「新羅村落文書의 戶等 算定 방법」 『한국고대사연구』 67
- 徐禎穆, 2016a 「신라 제34대 孝成王의 계비 惠明王妃의 아버지에 관하여」 『震檀學報』 126
- 서정목, 2016b 「신라 제34대 효성왕의 生母에 관하여」 『韓國古代史探究』 23
- 선석열, 2015 「신라 하대 효공왕의 헌강왕 서자설 재검토」 『石堂論叢』 62집
- 선석열, 2016 「신라 헌덕왕대의 정치과정과 정교부인의 혼인 문제」 『신라문화』 48
- 손흥호, 2016 「9세기 전반 신라의 정치동향과 충공의 역할」 『韓國古代史研究』 83
- 신정훈, 2009 「新羅 中代의 大赦와 恩典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 『白山學報』 제85호
- 신정훈, 2010 「8세기 신라의 정치와 왕권 -8세기 신라의 정치적 추이와 천재지변의 성격」, 한국학술정보
- 신형식, 1981 「삼국사기연구」, 일조각
- 안주홍, 2010 「신라 하대 문성왕대의 정국」 『新羅史學報』 19
- 梁銀景, 2010 「張保臯 활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백제 遺民과 신라인들의 佛事活

- 動』『新羅史學報』18
- 玉娜穎, 2017 「新羅時代 密教經典의 流通과 그 影響」, 淑明女子大學校 史學科 博士學位論文
- 劉占鳳, 2012 「新羅의 唐 文化 受容과 그 變容」, 慶北大學校 史學科 博士學位論文
- 尹善泰, 2005 「新羅 中代末~下代初의 地方社會와 佛教信仰結社」『新羅文化』第26輯
- 윤선태, 2007 「통일신라'의 발명과 근대역사학의 성립」『新羅文化』第29輯
- 윤선태, 2017a 「『三國遺事』紀異編 '元聖大王'條의 가치 -신라 '下古'시기의 정치구조와 그 함의-」『신라문화재학술논문집』38
- 윤선태, 2017b 「『新羅村落文書』중 '妻'의 書體 -문서의 작성연대와 관련하여-」, 『木簡과 文字』第19號
- 이기봉, 2011 「新羅 聖德王代의 災異와 儒敎政治」『韓國史研究』152
- 이기봉, 2012a 「신라 원성왕대의 재이와 정치·사회적 변동」『新羅史學報』25
- 이기봉, 2012b 「新羅 景文王代의 政局運營과 災異」『신라문화』39
- 李基峰, 2016a 「統一新羅時代 災異와 政治·社會 變動」, 忠南大學校 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 이기봉, 2016b 「新羅 憲德·興德王代의 災異와 정치·사회적 영향」『역사와 경계』100
- 李東柱, 2018 「新羅 統一期 王京의 構造와 運營」, 慶北大學校 史學科 博士學位論文
- 李泳鎬, 2009 「在唐 신라인 金氏墓誌銘의 검토」『新羅史學報』17
- 이영호, 2011 「통일신라시대의 왕과王妃」『新羅史學報』22
- 이재환, 2011 「傳仁容寺址 출토 '龍王'목간과 우물·연못에서의 제사의식」『木簡과 文字』第7號
- 이재환, 2015 「新羅 眞骨 研究」, 서울大學校 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 이재환, 2017 「新羅 眞骨의 '家系 分枝化'에 대한 재검토 - 사위의 왕위계승권을 중심으로 -」『大丘史學』127
- 이재환, 2018 「신라의 회의제와 상대등의 성격에 대한 재검토」『大丘史學』131
- 이재환, 2019 「7세기 중·후반 동북아시아의 전쟁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역사비평』통권126호(2019 봄)
- 이천우, 2017 「신라 효소왕대의 정국 운영과 성덕왕의 즉위 과정 -김순원의 활동을 중심으로-」『歷史學研究』65
- 이현숙, 2009 「촌락문서의 인구조형으로 본 신라통일기 전염병과 인구」『新羅史學報』15
- 李炫珠, 2014 「新羅 王室女性의 稱號變遷 研究」, 成均館大學校 史學科 博士學位論文

- 이현주, 2015a 「신라 중대 왕후의 책봉과 위상 정립」 『역사와 현실』 95
- 이현주, 2015b 「신라 중대 신목왕후(神穆王后)의 혼인과 위상」 『여성과 역사』 22
- 이현주, 2015c 「신라 중대 효성왕대 혜명왕후와 ‘正妃’의 위상」 『韓國古代史探究』 21
- 이현주, 2016 「신라 중대 효성왕대 혜명왕후와 ‘正妃’의 위상」 『韓國古代史探究』 21
- 이현주, 2017a 「신라 중대 王母의 칭호와 위상 - 혜공왕대 만월태후를 중심으로 -」 『한국고대사연구』 85
- 이현주, 2017b 「신라 중대 만월태후의 자기인식과 ‘성덕대왕신종(聖德大王神鍾)’」 『여성  
과 역사』 27
- 이현주, 2018 「신라 하대초기의 왕위계승과 태후의 역할」 『여성과 역사』 29
- 이희진, 2017 「삼국-통일신라시대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의 이해 - 기후진동에 대응한  
사회 지속성의 메카니즘」 『한국학연구』 60
- 임영애, 2016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의 새로 발견된 ‘명문’과 ‘양식’ 문제」 『新羅文  
化』 47
- 張日圭, 2011 「응림의 결혼과 그 정치적 의미」 『新羅史學報』 22
- 張日圭, 2012 「창녕 관룡사의 신라 불교사적 위상」 『新羅史學報』 26
- 전덕재, 2006 「한국고대사회경제사」, 태학사
- 鄭東樂, 2011 「新羅下代 禪僧의 現實認識과 對應」, 嶺南大學校 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 鄭淳一, 2009 「唐代 金氏 관련 墓誌의 초보적 檢討」 『新羅史學報』 16
- 曹凡煥, 2010a 「神穆太后 -新羅 中代 孝昭王代의 政治的 동향과 神穆太后的 攝政-」 『서  
강인문논총』 제29집
- 조범환, 2010b 「新羅 下代 憲德王의 副君 설치와 그 정치적 의미」 『震檀學報』 110
- 조범환, 2011 「新羅 中代 聖德王代의 政治的 動向과 王妃의 交替」 『新羅史學報』 22
- 曹凡煥, 2014a 「신라 中代末 惠恭王의 婚姻을 통하여 본 政局의 변화」 『新羅文化』 43
- 조범환, 2014b 「《삼국유사》 왕력편의 異種記事를 통해 본 中代 新羅의 정치구조 -신라  
중대 景德王의 왕비 교체와 정치적 동향을 중심으로-」 『新羅史學報』 30
- 曹凡煥, 2015 「신라 중대 聖德王의 왕위 계승 再考 -『三國遺事』의 五臺山事蹟을 중심으  
로-」 『서강인문논총』 43집
- 조지형, 2007 「지구사란 무엇인가?」 『서양사론』 제92호
- 蔡旼錫, 2017 「昌寧 觀龍寺 龍船臺 石佛坐像의 조성 배경과 檀越 세력」 『新羅史學報』 41
- 崔聖銀, 2009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 小考 -造像銘文과 중대신라 불교조각-」  
『新羅史學報』 16

- 최순조, 2013 「국립경주박물관 남측부지 유적 출토 신명문자료 -東宮衙銘 호 및 辛番(?) 東宮洗宅銘 청동접시-」 『木簡과 文字』 第10號
- 최연식, 2018 「흥전리사지 출토 고승비편의 내용과 흥전리사지의 역사적 성격」 『木簡과 文字』 第20號
- 최의광, 2009 「新羅 元聖王의 王位繼承과 國人」 『韓國史學報』 제37호
- 최의광, 2011 「新羅下代 遺詔에 의한 王位 繼承 研究」 『韓國史學報』 제44호
- 최의광, 2012 「新羅 下代 王位繼承 分爭과 國人」 『史叢』 75
- 崔毅光, 2013 「新羅下代 王位繼承 樣相과 性格」, 高麗大學校 史學科 博士學位論文
- 최장미, 2011 「사천왕사지 발굴조사 성과와 추정 사적비편」 『木簡과 文字』 8
- 최장미, 2012 「四天王寺 出土 碑片의 形態學的 檢討」 『역사와 경계』 제85집
- 최홍조, 2009 「新羅 哀莊王代의 政治改革과 그 性格」 『한국고대사연구』 54
- 崔熙俊, 2018 「新羅 外賓 迎接儀禮 研究」, 高麗大學校 韓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 하일식, 2010 「신라 말, 고려 초의 지방사회와 지방세력 -향촌 지배세력의 연속성에 대한 시론-」 『한국중세사연구』 제29호
- 한국고대사학회, 2007 「한국 고대사 연구의 새 동향」, 서경문화사
- 한국고대사학회 편, 2017 『우리시대의 한국 고대사 1·2』, 주류성출판사
- 韓鈴和, 2012 「韓國 古代의 刑律 研究」, 成均館大學校 史學科 博士學位論文
- 韓準洙, 2010 「新羅中代의 唐制受容과 統治體制的 정비」, 國民大學校 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 홍석우·우경식·이상현·조경남, 2012 「제주도 당처물동굴 석순의 조직적 특징을 이용한 지난 2,000년간의 고기후 변화 연구」 『지질학회지』 제48권 제6호
- 洪承佑, 2011 「韓國 古代 律令의 性格」, 서울大學校 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 황상일·윤순옥, 2013 「자연재해와 인위적 환경변화가 통일신라 붕괴에 미친 영향」 『한국 지역지리학회지』 제19권 제4호
- 郭磊, 2016 「新羅 五臺山文殊信仰 研究」, 東國大學校 史學科 博士學位論文
- 王開發·沈才明·呂厚遠, 1988 「根據粉組合推斷上海西部三千年的植被·氣候變化」 『歷史地理』 第6輯
- 劉昭民 著/박기수·차경애 譯, 2005 「기후의 반역: 기후를 통해 본 중국의 흥망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竺可楨, 1972 「中國近五天年來氣候變遷的初步研究」 『考古學報』 1972年 第一期

- 近藤浩一, 2010 「景德王代 王子 金泰廉의 日本派遣 事情 -新羅 國內 政治와 관련하여-」  
『韓國古代史探究』5
- 木村誠, 2004 『古代朝鮮の国家と社会』, 吉川弘文館
- 木村誠 著/야마다 후미토 옮김, 2018 「新羅 村落文書의 작성 年代에 관하여」 『大丘史學』  
第133輯
- 小宮秀陵, 2014 「新羅·渤海의 對唐藩鎮交涉 研究」, 서울大學校 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 安田喜憲, 1990 「氣候と文明の盛衰」, 朝倉書店
- Ann Curthoys & John Docker, 2010 *IS HISTORY FICTION?*,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Press Ltd; 김민수 譯, 2013 「역사, 진실에 대한 이야기의  
이야기」, 작가정신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2007 *Climate Change 2007: The  
Physical Science Basis*, Cambridge University
- Park, J, A Modern Pollen-Temperature Calibration Data Set from Korea and  
Quantitative Temperature Reconstructions for the Holocene, *The  
Holocene* 21(7), 2011
- 랜디 체르베니 著/김정은 譯, 2011 「날씨와 역사」, 반디
- 볼프강 베링어, 2010 「기후의 문화사」, 공감인

## Abstract

### The Status and Challenge of ‘Unified Silla’ Study

LEE, Jaehwan

This article attempts to figure out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recent decade of researches covering the period from 676 CE to the fall of Silla dynasty and seek a new direction. Recently, there is an image that the research of ‘Unified Silla’ is relatively shrinking, but the results of the actual researches did not match that image. The reason why the researchers have such an image is that there are relatively few issues that may attract a big attention from the researchers, and also relatively few document materials excavated newly. At the same time, interest in the key issues that were previously considered important was diminished, and the direction of discussion was not concentrated on one side. It is noticeable that the big framework which bound the various stories, the tendency of the centripetal force was weakened.

The weakening of the centripetal force can also mean that the diversity was strengthened. As for the diversification, there are some concerns about fragmentation, but it should be encouraged in terms of expanding research areas to various themes and subjects. From now, the academic world of history must reach out to the tastes of the masses, and the themes and subjects that meet those tastes can be found among them.

In recent years, the global demand for huge historical narrative such as Big History and global history is remarkable. The themes and subjects which are fragmented can expand their stories along each space axis or time axis. The ways in which small stories meet the big world can be various. The expansion of vision is not just for history of Silla Dynasty or ‘Korean History’. Each research can also be a part of bigger story such as the human, the world and the earth not just of the country or the nation.

Key words : ‘Unified Silla’, diversification, fragmentation, Global History, Big History, the masses, the taste